성직자들도 국적과 시민권을 가진 국민인 이상 개인적으로 어떤 정파(政派)나 뉴라이트운동 같은 시민단체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할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불교 성직자들의 위치와 성직자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점들이 있다. 스님들의 경우 사바세계인 세속의 시비를 초월해서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고자 출가라고 하는 혁명적 결단을 행동으로 보인 분들이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는 차원이 다른, 지성인 중의 지성인이 되고자 한 분들이다. 아니 지성인의 차원도 넘어서서 일체의 시비곡직과 분별을 떠나 깨침의 도리를 행동으로 보이시려 정진하시는 분들이다.

물론 출가하신 분들이 단번에 완전히 일체의 이해관계와 시비곡직을 초월하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꼬집어서 지적하거나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출가 초발심의 서원이 바람직하며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출가자가 세속의 시비와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경우에도 편가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 규 칠
언론인

스님, '중도'를 지키세요

하물며 이해관계와 시비곡직의 그물 한 복판에 놓여 있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 정치와 관련되는 집단의 조직에 관여하여, 한 편을 들고 공개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우를 싫어하고 좌를 좋아 한다거나, 무조건 뉴라이트의 취지를 반대한다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여도, 우리 불교의 이상과 지고한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참으로 애석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란 어떤 것인가? 혹자는 임진왜란 때의 호국승병의 경우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의 살생유택(殺生有擇)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한다. 계율에도 개차(開遮)가 있다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살생의 계율을 깨뜨려도 무방하다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도망가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에게 사슴이 간 방향을 일러주지 않고 거꾸로 일러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불망어계(不妄語戒)를 깨뜨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편법을 방편이란 이름하에 쉽게 열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불교 뉴라이트'에서 발표한 취지문을 보면 '현재 극단적인 좌우로 대립, 갈등, 국론분열이 전개되고 있고, 선동정치나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갈등조장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배격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에 스님들의 참여 그 자체가 벌써부터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일반에 찬반을 비롯해 의견이 분분하게 만들고, 어진 불교도들 마음에 내상을 내면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스님들의 공개적 조직적 정치 관련행위, 그것은 어떤 분들의 의견은 될 수 있고 그 의견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지도자로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삼계의 도사와 인천의 스승이 되겠다고 출가한 수행자들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포용하고, 좌우의 편가르기를 넘어서서 좌우를 지양하고 발전시켜 보다 나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정진하게 인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 불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 이농의 가속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초고령화, 쌀개방 등으로 심각한 농촌해체현상을 보이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는 그대로 지역 사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들어 사찰의 존립자체를 염려하고 있는 농촌사찰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같은 포교사각지대의 하나인 농촌포교 활성화를 위해 며칠전 조계종에서는 농촌포교의 해법을 찾는 종책연찬회가 열렸다.

불교가 농촌이라는 특수지역에 이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농활(농촌봉사활동)이나 두레조직 등을 통해 선교를 추진해온 타종교에 비해 만시지탄조차 포기할 정도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농촌포교의 성공사례 가운데는 '연꽃대량재배' '동식물 천도재' '효도와 문화포교' 등이 들어 있다.

숙제 많은 '농촌 포교'

이는 포교와 지역농촌의 분위기 쇄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으로 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관심과 특기가 잘 어우러져 거둔 성과일 것이다.

농촌포교에는 종단의 제도적 보완, 본사 및 도심지역 부유사찰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개성과 사찰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해당지역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법찾기와 노력이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유실수나 버섯재배 등 사찰여건에 맞는 생산적 체제 확립 둘째, 모심기,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등 농촌봉사활동 전개 셋째, 우리 먹을거리 먹기와 직거래운동 전개 넷째, 문화휴식공간으로서의 사찰환경개선 다섯째, 지역민과의 신뢰구축 모색과 지역사회 관심사 적극 참여 등이다.

농촌사찰들이 예전처럼 앉아서 신도를 기다리지 않고 깊은 신심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새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면 아직 미래는 어둡지 않다. 앞으로 농촌지역 포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프로그램 등이 많이 연구 개진되고 해당사찰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기대한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식탁 위의 생선

너는 인간일 때에 아이들이 살생하고 고기 먹는 것을 돕거나 기뻐하였으니, 살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목숨이 괴로우리라. 이제 똑같은 과보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리라. 〈구문목련경〉

어느 날 바다에서 생선이 사라진다면? SF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생태계 파괴와 남획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불과 40년 뒤인 2048년에는 해양 생태계 내 모든 어류가 멸종해 식탁에서 생선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11월 3일 BBC방송과 AP · 로이터 연합 등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비관론자의 우울한 전망에 불과할 뿐'이라고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이 우울한 미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이 11월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의 갈치와 참조기 열 마리 가운데 아홉 마리 이상이 한 번도 알을 낳아보지 못한 미성숙어일만큼 재생산 능력이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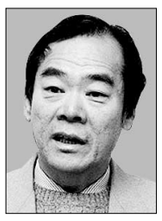
내버려둔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뒤에 연근해 어획량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어업기반이 상실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저인망 어선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갈퀴로 긁듯이 샅샅이 훑어 치어들을 잡고, 무분별하게 어종을 포획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와 공해 문제가 겹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살생이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 무한한 것은 없다. 부처님 말씀대로, 무한한 것은 인간의 욕심뿐이다. 비구들에게 '필요할 때가 아니면 풀이나 나무조차도 잡아 뜯지 말라(잡아함 마니주계경)'고 당부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시기다.

■ 이은비(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16일 수능시험…수험생과 부모에게



긴장말고 꼼꼼히 복습… 익숙한 음식 섭취가 '보약'

결전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흔히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 선수단이 결전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본받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에서 결전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감독이나 선수들은 이 결전의 날에 맞추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해 판을 짠다.

요즈음은 이런 관리도 과학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팀의 컨디션을 최상의 정점에 오르도록 준비를 한다. 수능 시험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긴 여정 동안 준비해 온 결전이다. 내가 익히고 준비한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만 남은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준비를 했건 모자라게 준비를 했건 간에 이젠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체험할 시간은 이미 없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가 남는다. 두 가지만 충고를 해 본다.

첫째는 남은 며칠간의 시간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연습할 시간은 아니다. 공격이 아니라 수비다. 이미 내가 공부해 둔 내용을 잘 지키는 일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할 것을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겐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 이 아쉬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아쉬움에 매어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익혀 둔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 보는 수준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과감히 포기를 하고 내가 익혀 둔 내용부터 찬찬히 적어 나가는 것도 요령일 것이다. 흔히 문제를 풀다 보면 될 것 같아서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푼다. 그 다음에는 조금 생각하면 풀릴 문제 세 번째로는 남는 시간을 생소하지만 매달려 풀어보는 그런 문제 순으로 정리를 해 가면 좋을 것이다. 긴장한 나머지 잘 풀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당황하고 집착을 보임으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남은 시간은 익혀 둔 공부를 잘 지키는 요령으로 임해 보자.

두번째는 건강이다. 건강도 리듬을 탄다. 수능 준비 때문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일을 생각하면 리듬이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건강은 집중하는 능력과 상관관계가 많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수능시험을 망치게 된다.

수능 시험에서 많이 보는 현상은 문제는 아는 문제인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수능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다. 모든 에너지는 건강에서부터 나온다. 남은 시간 동안 이 건강도 수비개념이어야 한다. 대중 매체에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약을 쓰면 좋다는 등의 말에 쉽게 그렇게 빠지기도 한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음식이외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가도 우리 신체가 그를 감당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남은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건강법을 추구하기보다 수비개념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한다. 수비에서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 못지않게 수험생의 부모들도 애간장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불안하기도 마찬가지다. 수험생을 어떻게 도울까? 우선 부모들의 불안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신경이 예민할 대로 예민해 있는 수험생들에게 똑같은 말로 습관적인 자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믿는다. 네가 공부한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 정도의 따뜻한 격려만 하면 될 것 같다. 지나친 관심이나 무관심은 수험생을 불안하게 만든다. 수험생이나 보호자가 담담할 수 있다면 수능시험은 떼어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이근후(이근후 열린마음의원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육조사

간화선 실참 체험을 위한 집중수련

육조사 看話禪 實參 체험을 위한 집중수련,
매월 첫째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가을 감 나무에 빨간 감이 달려있지만 따서 먹어야 감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看話禪은 어렵다!
스님네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상근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등등의 이유들어 물러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경험자의 지도를 받아 하게 되면 가장 쉽고 간단 하면서 석가 부처님과 조사님, 그리고 역대 선지식네 님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직접 체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못 시작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곳에 병통이 있는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집중수련은 門을 열어 놓고 재가 출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음알이 선문답식 방법을 철저히 멀리하고 실참,경험 위주의 수련으로 지도 합니다.
왜 좌선을 할 때 앉아있는 것을 권하는가?
호흡과 좌선은 무슨관계가 있는가?
상기병은 왜 생기는가?
왜 공부인들이 의리선으로 떨어지는가?
화두에 있어서 바른의심은 어떻게 짓어가는가?
현금의 이뭣고 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맥혀 있는가?
모든화두의 병폐는 어디에 있는가?
또 남방불교, 일반 명상과 간화선은 어떻게 다른가?
敎說과 禪은 왜 다르지 않는가 등등의 의문점을 풀어 주어 묻고 질문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몸을 다루는 좌선을 위한 체조법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tea time 도 갖습니다.

참 가 비 : 5 만원
예금구좌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저녁 공양시간 : 5시30분

참가자는 각자 손수 만든 음식을 한가지씩 가져오셔서 서로 나눠드신 저녁시간을 갖습니다. tea와 보리 콩 섞인밥을 절에서 준비 하겠습니다.
일종의 pot luck입니다. 〈pot는 음식을 담아 둔 접시 이고 luck는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음식을 가져오는줄 모르니 운이 좋으면 맛이 있고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돌아 올 수 있겠다는 의미로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서로 각자가 한접시씩 가지고오신 음식을 열어놓고 나눠 먹는다는 뜻이랍니다.〉
정원제이므로 조기에 入房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신분은 하룻밤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옷은 헐렁한 것을 입고오심이 좋습니다. 더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물어 주십시요.
이 프로그램은, 現代사회에서 生存속에 있는 분들이 항상 禪房에만 앉아 있을 수 없는고로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바른 修行法을 익혀 놓으시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看話禪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창하는 것입니다.

문의 : 02-953-5291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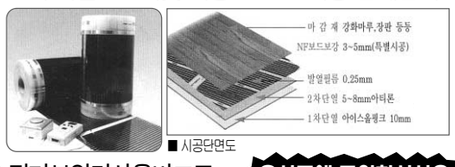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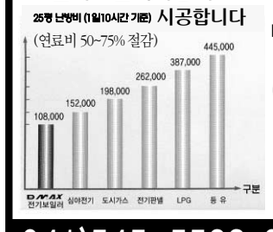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